

No.2017083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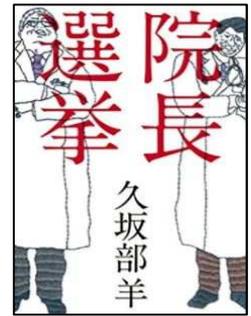
제목: 원장 선거

저자: 구사카베 요

페이지수: 285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8월 24일



<내용소개>

압도적인 리얼리티에 기반해, 병원 내부의 문제를 예리하고 코믹하게 그린 소설

소설이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사들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이다. 먼저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의사의 본분에 매우 헌신적인 유형이 있다. 반면 의사의 역할 보다 명예와 권력, 이득을 중시하는 속물적인 유형도 있는데 언제나 현실적인 악역으로 등장한다.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현직 의사 출신 작가 '구사카베 요'는 데뷔작 《반신 불수(A케어)》를 비롯해 의학 서스펜스 소설들을 계속 선보여 왔다. 병원과 의사가 처한 현실에 약간의 상상력, 사회문제를 결합함으로써 주변에 실재하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알고 싶지 않아 하는 테마들을 날카롭게 다룬다. 이번 신간 《원장 선거》 역시 작가의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로 인 병원이 무대다.

이야기는 프리랜서 기자인 '요시자와 아스카'가 의료붕괴의 구세주들이라는 제목의 취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최고의 국립의학병원으로 불리는 텐토대학 의대 부속병원. 병원장인 '우츠츠 사토루'가 어느 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공식적인 사인은 부정맥 돌연사였다. 뒤에서는 자살, 사고사, 과로사 등 병원장의 죽음에 대한 추측성 소문들이 퍼져나간다. 병원 측에서는 이윽고 새로운 병원장을 선출하는 원장선거를 열겠다고 공지한다. 후보는 4명의 부원장들이다. 인간 신체의 장기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당당하게 입밖에 내는 심장제일주의, 순환기내과 소속 교수 '도쿠토미 교이치'. 천재적인 수술 솜씨를 지녔지만 성격이 극단적인 내과 혐오자, 소화기외과 소속 교수 '오소지 아츠로', 수많은 백내장 환자들을 모아 대규모 수술을 하면서 병원 수익을 40% 향상시킨 안과 소속 교수 '도우메키 요스케'. 마지막으로, 병원의 낡은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40대의 젊은 정형외과 소속 교수 '가모시타 토오루'. 이 네 사람 중 권력의 정점이나 마찬가지로 병원장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결정된다. 이들은 자기자신이 타 후보들보다 잘났으며 자기가 소속된 과가 더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원장으로 뽑아줄 것을 호소한다. 그런데 선거운동에 한창 물이 올랐을 무렵, 우츠츠 사토루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최고의 병원에 모인 의사라는 이름의 엘리트들. 프리랜서 기자라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

원장의 죽음 그리고 원장 선거를 통해, 의사들의 서열 싸움과 차별 그리고 오만함과 비굴함을 사실적이면서도 코믹하게 그려냈다. 작가의 다른 작품보다 밝은 분위기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묵직하다.

<목차소개>

제 1장: 전설의 교수실

제 2장: 수술부 목욕탕

제 3장: 견원지간

제 4장: 사죄회견

제 5장: 코미디

제 6장: 재미있는 거탑

<저자소개>

구사카베 요

1955 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오사카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일본 외무성 외무 의무관으로 해외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노인 데이케어와 재택 의료에 종사했다. 2003 년, 현직 의사로서 노인 의료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 《반신불수(A 케어)》로 데뷔하였다. 2004 년 발표한 《파열》, 2006 년 《무통》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14 년 《나쁜 의사》로 일본의료소설 대상을 수상하였다.

No.20170830-002

제목: 100억 명의 요리코 씨

저자: 니타도리 케이

페이지수: 272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8월 17일



<내용소개>

예측 불가능한 호러와 서스펜스가 코믹함과 절묘하게 섞인 전대미문의 오락소설

학교는 괴담 장소로 적격이다. 평범한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라는 곳에 익숙하다. 사회의 규칙을 가르친다며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면이 있고, 그 안에서 선의와 악의가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킨다.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쉬운 장소인 것이다.

니타도리 케이의 신간 《100억 명의 요리코 씨》의 무대가 되는 곳은 대학교 안에 위치한 학생 기숙사다. 캠퍼스의 아주 구석진 곳에, 커다란 호수와 농학부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밭에 둘러싸인 부양(富穰)이라는 이름의 기숙사가 있다. 대학교 공식사이트에는 학교가 보유한 네 곳의 기숙사가 소개 되어 있지만 이 중 '부양'은 언급조차 없다. 학생들 중에는 그곳이 정말 있는 곳인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주인공 '고이소'는 교육학부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월 1300엔으로 지낼 수 있는 '부양' 기숙사에 들어온다. 마치 쇼와시대로 타임슬립이라도 한 것 같은 허름하고 낡은 외관, 쥐와 벌레가 당연하다는 듯 출몰하는 실내, 근처 밭에서 오는 것 같은 정체불명의 버섯과 여러 곤충들. 그리고 빈곤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기숙사 선배들은 학교 수업 커리큘럼과는 전혀 상관없는, 쓸모 없는 탐구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에 질리기 직전인 고이소는 어느 날, 선배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 기숙사에는 피투성이 여자가 천장에 붙어있거나 화장실에서 시뻘건 물이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다. 천장이나 창 밖에 갑자기 나타나 놀라게 한다는 그 여자의 이름은 '요리코'. 그런 일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고이소는 피투성이 요리코를 두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숙사 동료들과 함께 '요리코'라는 괴현상의 정체를 파헤쳐 나간다.

작가 니타도리 케이의 등단 10주년 기념작이기도 한 이 소설은 독특하다. 귀신을 전면에 내세운 부분을 보면 호러 서스펜스 장르지만 주인공이 개성 넘치는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하는 부분은 포복절도 청춘 소설이다. 상식적인 사람과 비상식적인 사람이 섞여 있고, 베냉인과 재일중국인도 등장한다. 공통점은 모두 똑똑하고 자기만의 특기가 있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괴짜들이라는 것이다. 녹색 버섯과 의료용 알코올 같은 기묘한 식재료로 매일 밤 파티가 벌어지는 이 기숙사

에,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는 요리코의 정체는 무엇일까? 웃음과 긴장감, 반전이 섞여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저자소개>

니타도리 케이

1981 년 치바 현에서 태어났다. 2006 년 《이유가 있어 겨울에 나온다》로 제 16 회 아유카와 데쓰야 상 가작 입선, 같은 작품으로 2007 년 데뷔하였다. 그 외 《전력 외 수사관》 시리즈, 동물원 배경 미스터리 《가에데가오카 동물원》 시리즈, 《파티시에의 비밀 추리-시식은 용의자부터》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7083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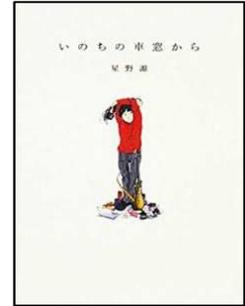
제목: 생명의 차창에서

저자: 호시노 겐

페이지수: 200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7년 03월 30일



<내용소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호시노 겐의 솔직한 에세이

일본에서 배우 겸 음악가, 또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호시노 겐. 음반 성공에 이어 2016년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에서는 주연을 맡고 주제곡도 불렀다. 이를 통해 연기자로서, 가수로서 크게 히트를 치며 인기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는 이전에도 소박하고 솔직한 에세이를 발표해 호평을 얻었는데, 올해 3월 말 출간된 에세이 《생명의 차창에서》 역시 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여름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스튜디오에서 쓰러졌던 호시노 겐. 표제작인 첫 글에는 당시에 받은 뇌 수술이 언급되어 있다. 당시 절개했던 부위는 흉터로 남아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만져보면 약간의 요철이 느껴진다고 한다. 평소에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수술부위처럼 평생 사라지지 않을, 인생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일 것이다. 약한 근시가 있어 렌즈를 꺼도 먼 곳은 흐리게 보이는데 그 때문인지 창문 안쪽에 자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안쪽에서 밖을 바라보는 듯한, 또 다른 자신이 나를 조정하는 것 같은 감각은 그 수술 이후 더 강해졌다고 한다. “인생은 여행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 내 몸을 기관차에 비유한다면 이 차창은 의외로 재미 있다.” 그는 창 안쪽에는 자기의 생생한 의식이, 창 바깥에는 자유롭게 떠돌고 움직이는 자기가 있다고 표현한다.

잡지 《다 빈치》에 2014년 12월호부터 연재를 했던 글들이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약 2년간 겪은 일들이 글의 소재로 등장한다. 호시노 겐을 대세로 만들어준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와 대하사극 《사나다마루》를 촬영할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크게 흥행한 히트곡 〈SUN〉과 〈사랑(恋)〉이 완성되기까지의 비화, 흥백가합전 출연이 결정되던 순간 등 팬으로서 궁금해할 만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밝힌다. 또 마치 다른 사람인 척 트위터를 했던 일, 스스로 낮가림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 계기, 그의 마음을 뒤흔든 라쿠고 명인 ‘쇼후쿠테이 츠루베’의 한 마디 등 보다 사적인 영역의 경험담도 공개한다. 호시노 겐의 꾸밈없는 문체는 술술 읽히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1인칭 시점의 심리묘사가 큰 흡입력을 발휘하고, 마치 그 시간 그 장소에 같이 있는 것처럼 정경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다재다능한 워커홀릭, 동시에 사람과 사회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잃지 않는 호시노 겐이 바라본 인생 풍경은 어떤 것일까? 이 책을 통해 그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생명의 차창에서 / 다마가와 선셋 / 분노 / 전파와 크리스마스 / 친구 / 작곡을 하는 날들 / 인간 / SUN 등

<저자소개>

호시노 겐

배우, 음악가, 작가. 1981년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다. 앨범 《YELLOW DANCER》(2015년), 싱글 〈SUN〉(2015년), 〈사랑(恋)〉(2016년)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제66회·67회 《NHK홍백가합전》에도 연속 출연하였다. 배우로서 첫 주연 영화인 《문지마 사랑(箱入り息子の恋)》으로 제37회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배우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사나다마루》등에 출연하였다. 저서로는 《되살아난 변태》, 《일하는 남자》,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 《호시노 겐의 잡담집 1》등이 있다.

No.20170830-004

제목: 남존여비: 사카이 준코의 '남녀평등' 들여다 보기

저자: 사카이 준코

페이지수: 248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7년 05월 26일



<내용소개>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남존여비 사상과 여성차별 의식을 지적하는 젠더론

남녀평등을 지향한다고 외치지만 정말 실현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회는 한 순간에 변할 수 없다. 시대가 변하며 등장하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정착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재정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다. 남녀평등 또한 이전에 비해 큰 진전을 거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저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성별 간 대립 구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자 사카이 준코는 30~40대 여성의 삶을 지속적으로 담론화해 온 작가다. 고교 시절부터 칼럼을 쓰기 시작해 30년 넘는 세월 동안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아이가 없는 여성의 삶을 고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 현대 사회에 남아있는 남존여비 사상을 들여다본다. 남존여비란 남성을 '위', 여성은 '아래'로 놓고 남성이 여성보다 권리나 지위에서 우위에 있다며 상대적으로 여성을 업신여기는 사고방식이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처럼 왜곡된 유교문화의 잔재가 70~80년대까지 강하게 남아있었다. 여자는 직장에서 같이 입사한 남자사원과 동등한 업무를 받지 못했으며, 잡일이나 손님 접대 시 차를 준비하는 일을 맡아야 했다. 또한 조직에서 다수를 점하는 남자들은 성희롱이나 다름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를 막으려는 법 제도와 조직의 자정작용이 함께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남녀평등으로 향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지금, 사카이 준코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남존여비의 잔해들을 짚어낸다.

본인조차도 대학생이 된 후에야 자신이 여성이라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경험, 남존여비의 아이콘이나 마찬가지로인 규슈 지역 남성들의 실제, 남편을 주인(主人)의 한자로 부르는 호칭의 문제점, 자세히 뜯어보면 남녀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 가사, 한국은 해당하지 않지만 결혼하면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관습의 문제점 등을 열거한다.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주제도 있지만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과 주변의 경험 중 보편적인 것들을 예로 들며 풀어나가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총 20편의 짧지만 깊이 있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말한다. 오히려 자기가 차별의 대상인 줄 몰랐던, 차별을 부정

하지 않았던 시절이 편했다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누군가에 의해 나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자신은 한 발 물러나서 남존여비 사회를 방관해 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할 책이다.

<목차소개>

작은 여자 흉내 / 차를 준비하는 여자 / 규슈 남녀 / 뉴트럴 / 말의 여장(女装) / 남편(主人) / 부
부별성 / 무지의 자유 / 여성의원 / 레이디 퍼스트 / 성(性) / 귀엽다 / 기가 세다 등

<저자소개>

사카이 준코

1966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고교시절부터 잡지에 칼럼을 발표했다. 릿쿄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고 광고기획사인 하쿠호도를 거쳐 집필활동에 전념해왔다. 2004 년 《마케이누(싸움에서 진 개)》로 후진코론 문예상, 고단샤 에세이 상을 받았다. 그 외 저서로 《깎보는 사람》, 《아이 없는 인생》, 《지진과 독신》 등이 있다.

No.20170830-005

제목: 아침의 커피, 저녁의 맥주가 좋은 업무성과를 만들어낸다!

저자: 마부치 토모코

페이지수: 20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7월 18일



<내용소개>

자주 마시는 커피와 맥주가 업무 능력과 성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부스터가 된다!

한국인은 커피와 맥주를 매우 즐긴다. 서울 시내 번화가를 둘러보면 온갖 커피전문점과 개인 카페, 각양각색의 호프집 등이 상점가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과 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료가 바로 커피와 맥주다. 아직 정신이 몽롱한 아침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 잠을 깨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끼리 간단히 또는 집에서 혼자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원한 맥주를 들이킨다. 그런데 커피와 맥주에 숨겨진 효과가 있다면 어떨까?

이 책의 저자는, 그 두 음료를 마심으로써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아침엔 커피를 저녁엔 맥주를 마시고 있지만 업무 능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씹어야 하는 고체 음식물보다 마시는 액상으로 된 음료 쪽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각성효과가 더 크다. 그 중에서도 커피와 맥주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자율신경을 리셋시키는 '최강의 퍼포머'에 해당한다. 이 음료들이 갖고 있는 힘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

서장에서는 커피와 맥주의 효과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1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섭취 습관을 알려준다. 커피를 조식으로 과자나 빵과 함께 마시면 오히려 뇌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섭취를 피해야 하는 시간대도 있다고 한다. 하루에 몇 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맥주에 대해서는 숙취를 겪는 이유와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실 때 어느 것부터 마셔야 하는지 알려준다. 2장은 커피, 3장은 맥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커피는 계획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의욕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된다. 날씨가 더울 때, 과음한 다음날, 상사 때문에 짜증날 때 마시면 효과를 발휘하는 커피 메뉴를 알려준다. 맥주는 살이 찐다, 안 찐다는 의견이 항상 분분한데, 다이어트와 맥주 및 두통과 맥주의 관계,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4장에서는 커피와 맥주로 빼앗기기 쉬운 수분을 보충하여 업무 능력과 성과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팁을 제시한다.

커피와 맥주는 쉽게 구해 마실 수 있는 친근한 음료지만, 건강에 좋다 나쁘다는 논쟁이 자주 벌어지는 품목이기도 하다. 이 책은 커피와 맥주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방법을 담고 있다. 저자가 호언장담한 대로, 몸에도 좋고 업무 능력도 끌어올려주는 부스터로 사용해보자.

<목차소개>

서 장: 커피&맥주 최강 콤비설 - 이 두 가지만 마시면 <최고의 컨디션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 1장: 업무 능력과 성과를 저하시키는 커피 & 바람직하지 않은 맥주 섭취 방법

제 2장: 커피로 High Performer가 되자

제 3장: 살찌지 않는 맥주, 취하지 않는 맥주

제 4장: 업무 능력과 성과를 끌어올리는 수분 보충 규칙

권말부록: 커피와 맥주에 관한 사소한 지식 모음

<저자소개>

마부치 토모코

마부치 메디컬 클리닉 원장, 학교법인 식량학원 부교장. 도쿄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 피부과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마부치 메디컬 클리닉을 열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내과·피부과, 안티에이징 의료, 분자정합 영양학이 전문분야이며 모든 과와 제휴를 맺어 인간의 신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영양학과 식문화에도 정통하며 2014 년 밀라노 국제박람회 일본관에 서포터로 참가했고, 2015 년 도쿄영양식량전문학원 부교장에 취임하였다. <물은 1 일 3ℓ>를 추천 및 실천하는 등 수분보충의 중요성도 역설하고 있으며 카페인과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몸을 구하는 물 마시는 방법, 고르는 방법 - 물은 최고의 보충제》가 있다.

No.20170830-006

제목: 운명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스타달: 스타달의 '연애론' 쉽게 읽기

저자: 미즈노 케이야

페이지수: 354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8월 11일



<내용소개>

소설 형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스타달의 '연애론'을 완벽 독파!

서로에게 자연스레 마음이 이끌려 사랑을 나누는 '연애'. 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에도 법칙이나 이론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연애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순조롭게 이어나가기 어렵다. 순간순간 상대방의 심리상황을 알아채고 그에 맞춰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며 조언하는 연애 전문가들도 꽤 있고, 관련 서적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연애 분야에 고전이 있다면 프랑스의 대표 소설가이자 낭만주의 운동의 대변자였던 '스타달'의 《연애론》이라는 에세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랑의 행복이 없다면 명예, 재산, 쾌락 같은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던 스타달은 마틸드라는 여성을 20여 년에 걸쳐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와의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실연의 아픔을 쏟아 부어 연애론을 집필했다. 정신적 사랑을 지향점으로 삼고, 연적을 물리치는 방법, 친구에게 연애 사실을 털어놓는 방법, 바람 피운 것을 들켰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연애의 심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운명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스타달》은 딱딱한 이론 풀이 서적이 아니다. 소설 형식을 차용해 스토리 속에서 원작의 내용을 설명한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만다이라 사토코'는 어린 시절 대학교수였던 아버지가 일으킨 구석기 유물 발굴 자작극 때문에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자기가 그 날조사건을 일으킨 자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위축된 자세로 살아가다 보니,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이 서른이 넘은 지금도 모태솔로다. 집에서 책을 읽으며 연애를 상상하는 시간이 유일한 힐링.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던 사토코의 앞에 이상형의 남자가 나타난다. 언제나처럼 그냥 모르는 척,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도 행동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 사토코. 그런데 책 속에서 초로의 남성이 나타나, 자신을 프랑스의 문호 스타달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사토코를 위한 연애 가이드를 시작한다. 운명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조금씩 스스로를 가뒀던 틀을 깨고 나오는 사토코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차례로 벌어지기 시작한다.

자기를 최고로 돋보이게 하는 결정작용, 남자를 자신의 포로로 만드는 팜프파탈식 행동,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등 시대를 초월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연애의 기술이

총 망라된 책이다. 사토코처럼 운명적인 사랑에 성공하고 싶다면 참고해보길 바란다.

<저자소개>

미즈노 케이야

자기계발컨설턴트. 게이오기주쿠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2003 년 웃음의 패턴을 해부한 《인정받는 기술(공저)》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그 외 저서로는 《꿈을 이루어주는 코끼리》, 《신과 가장 가까운 동물》, 《단 한 통의 편지가 인생을 바꾼다》, 《그래도 나는 꿈을 꾸다》(공저) 등이 있으며 DVD 《온후한 상사를 화나게 하는 방법》의 기획구성 및 각본도 담당하였다.

No.20170830-007

제목: 장수 지옥

저자: 마츠바라 준코

페이지수: 208

장르: 사회

출간일: 2017년 08월 05일



<내용소개>

평균 수명 100세의 장수시대,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진심을 들어본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꿈은 '오래 사는 것'이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불멸' 혹은 '영원'한 삶을 사는 자는 신처럼 여겨졌다. 신비한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멀리 해야 할 불경스러운 존재로 언급되었다. 인류의 꿈은 과학 기술과 의학 수준의 발전, 경제적 풍요, 영양상태와 위생수준의 향상 덕분에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코앞이고, 많은 나라들은 젊은 층이 줄어들고 고령 인구자가 많아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과연 아직도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행복으로 직결되는 것일까?

현실을 살펴보자면 중·장년 시기부터 평생 관리가 필요한 크고 작은 병을 갖게 되는 '유병장수' 시대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한 이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던 노인이 쓸쓸히 고독사한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뉴스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데 재취직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노인복지정책도 이렇다 할 수가 없어 보인다. 일본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다. 개인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다. 한국보다 더 빨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는, 그저 생물학적인 장수는 원하지 않으며 늙어가는 것이 괴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구역구역 살아봤자 고통이 계속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장수=행복'이라는 가치관이 붕괴된 지금, 스스로 죽음에 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예민한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래 살게 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과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을 저자가 직접 만나고 취재하여 얻은 지식, 느낀 바를 전달한다. 그들의 말도 논리가 있다. 누워서 자리보전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해 갖가지 제약 하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수명을 연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간병 아르바이트 직원을 만나 실태를 들어보기도 한다. 보통 '죽음'이라 하면 자연사, 병사, 사고사 등을 떠올리는데 이제는 안락사도 뚜렷한 유형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들어볼 수 있다. 바람직한 죽음을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도 요약해 제시한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그 방법은 스스로 정하고 싶다고 들 이야기한다. 자연히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의 죽음은 이제껏 금기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계기를 만들어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오래 사는 것이 두렵다

제 2장: 르포/ 장수 지옥의 현장에서 - 그래도 당신은 생명연장을 바랍니다

제 3장: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 4장: 안락사는 안 되는 것일까요 - 네덜란드 안락사협회를 방문하다

제 5장: 좋은 죽음을 위해서 - 지금부터 생각해둬야 할 10가지

제 6장: 어떻게 죽을지 스스로 정하고 싶다

<저자소개>

마츠바라 준코

1947 년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쇼와여자대학을 졸업하였다. 미국 뉴욕시립 퀸즈 칼리지 대학원에서 카운슬링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39 세에 《여자가 집을 살 때》로 작가로서 데뷔하였다. 세 번째 저서 《크로와상 증후군》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일관된 <여성이 홀로 살아가는 법>을 테마로 삼아 집필,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NPO 법인 SSS 네트워크 대표이사. 싱어송 라이터, 영화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기타 저서로는 《<1 인 노후>는 무섭지 않다》, 《노후 외톨이》등 다수가 있다.

No.20170830-008

제목: 일본 게스트하우스 탐방

저자: 마츠토리 무

페이지수: 160

장르: 여행, 코믹

출간일: 2017년 07월 13일



<내용소개>

현지의 매력이 물씬,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쌓을 수 있는 일본의 게스트하우스 소개

여행을 떠날 때면 숙박시설이 신경 쓰인다. 최근에는 숙소 유형이 다양해져서 자신의 사정과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그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차지하는 게스트하우스의 묘미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같은 여행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주인이 차를 빌려주거나 직접 가이드를 해주는 행운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섬 여행을 좋아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일러스트 에세이 작가다. 일본 국내 게스트하우스 100곳 이상, 80개가 넘는 섬을 여행했다고 한다. 그 중 강력추천하고 싶은 게스트하우스만 쓱쓱 골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초보자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용방법을 먼저 설명한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6곳은 상세히 다루고, 마지막 장에는 각 현 별로 머물기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선정했다.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오래된 민가, 폐교를 활용한 쇼와시대 분위기의 복고풍 민박, 정원에서 바다가 보이는 자연친화적인 숙소 등 일본의 색다른 매력이 깃든 인상적인 게스트하우스를 만날 수 있다. 낯선 곳의 일상생활에 일부가 되는 것을 즐기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을 계획할 때에 유용할 것이다.

<본문 이미지>





<목차소개>

게스트하우스란...? / 게스트하우스를 즐기는 POINT / 게스트하우스 간단 설명서

Chapter 1: <Ishigakiya>

Chapter 2: <Chottocoma>

Chapter 3: <Setusgetsu Karo>

Chapter 4: <Amakusa Backpackers Furaibo>

Chapter 5: <Guesthouse HodoHodo>

Chapter 6: <Moon Garam Masara>

Chapter 7: 다양한 사람을 만나러, 게스트하우스 소개!

<저자소개>

마츠토리 무

일러스트 에세이 작가. 1977년 시가 현에서 태어났다. 외딴 섬과 게스트하우스, 시가 현의 민속 행사를 다니는 여행을 일생의 업으로 삼았다. 20세 때 야쿠시마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며 여행지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이후 여행지에서는 주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른다. 지금까지 방문한 국내의 게스트하우스만 100곳 이상이며, 방문한 일본의 섬은 82개나 된다. 그곳의 일상생활에 살짝 끼어드는 여행을 제일 좋아한다.

No.20170830-009

제목: 다람쥐 형제와 신기한 씨앗
저자: 고데마리 루이(글), 쓰치다 요시하루(그림)
페이지수: 124
장르: 아동 문학
출간일: 2017년 06월 01일



<내용소개>

숲 속에서 정체불명의 신기한 씨앗을 손에 넣은 다람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비밀의 숲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나뭇잎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곧 떨어져 낙엽이 될 나뭇잎과는 올해의 작별인사를 나누고, 가지마다 맛있는 열매가 달린 나무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숲 속에 위치한 검은 곰 레스토랑은 날씨 좋은 날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레스토랑 뒤편에는 숲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아기 다람쥐 형제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마에게 받은 브로치를 놀다가 떨어뜨려서 구석구석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 살살이 살펴보던 형제는 계곡 근처에서 작고 신기한 씨앗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씨앗인 걸까요? 검은 곰 셰프와 산토끼 파티쉐에게 물어보지만 역시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무나 풀의 씨앗으로 보이는데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숲의 도서관장인 턱수염 관장님을 떠올립니다. 다람쥐 형제는 서둘러 도서관으로 향하고, 관장님은 온갖 씨앗이 소개된 도감을 주면서 이 책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두꺼운 페이지를 모두 넘기도록 그 수상하고 신비한 씨앗의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턱수염 관장님이 도감이 아닌 다른 책을 건네줍니다. 제목이 《외톨이 나무》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홀로 세워져 있던 사과나무는 매일 외로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무에 머물게 된 작은 새들과 친구가 되지만, 때가 되자 새도 떠나고 다시 외톨이가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고 나무는 추위와 외로움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습니다. 결국 눈 내리는 들판에 쓰러져 눈을 감기 직전, 어디선가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과나무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새가 다른 숲에 옮겨졌던 씨앗은 다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과나무는 여기 저기 다양한 곳으로 옮겨 다니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푹 빠져있던 다람쥐 형제는 비로소 그 씨앗의 정체를 눈치챈다. 다음날, 형제는 숲으로 가서 사과나무 발 한 구석에 그 신비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림책처럼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람쥐 형제가 주운 씨앗을 통해 계절변화에 따른 식물의 성장과정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동소설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을날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목차소개>

1. 맛있는 가을의 숲
2. 귀한 씨앗을 발견했다
3. 아무것도 모른다
4. 턱수염 관장의 주술
5. 아무도 모른다
6. 비 오는 밤
7. 외톨이 나무의 이름

<저자소개>

고데마리 루이(글)

소설가. 1956년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시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산리오 시와 메르헨 상,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라가치 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 《처음 만난 숲》, 《루와 린덴 언제나 함께》, 《약속해, 미우》, 《오늘부터 날 수 있어》, 《편지 고마워》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쓰치다 요시하루(그림)

1957년 야마가타 현에서 태어났으며, 니혼대학 예술학부 유화과를 졸업하였다. 1980년 《정원의 꽃》으로 데뷔해 그림책과 아동서적의 일러스트를 주로 그렸다. 주요 작품으로는 《노래 그림책》, 《노란 양동이》, 《꿈을 익히는 냄비》, 《아라이 군》 등이 있다.

No.20170830-010

제목: 호텔 숲 속 초등학교

저자: 고마츠바라 히로코(글), 가메오카 아키코(그림)

페이지수: 159

장르: 아동 문학

출간일: 2017년 06월 21일



<내용소개>

호텔로 변신한 숲 속 초등학교가 잊고 있었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되찾아줍니다.

젊은 층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한적한 지방 도시에서는 점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교들이 문을 닫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녀의 교육환경을 염려하여 좀 더 큰 이웃도시의 학교에 보내거나 아예 큰 도시로 이사를 가 정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교정은 그대로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숲 속 초등학교'. 산등성이에 아직 모자처럼 눈이 쌓여있는 3월, 세 명의 6학년 학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우사미 하루코', '다누마 미나', '곤 코타'. 이들은 졸업장을 받고 야마나카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부로 학교는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세 명의 졸업생뿐 아니라 교장, 교감, 담임, 교통지도선생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선생 역할을 홀로 맡아왔던 야마나카 선생님도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어지더라도 이 학교는 여전히 너희들의 학교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미나가 폐교가 된 숲 속 초등학교에 다시 돌아옵니다. 텅 빈 학교 건물 이곳저곳을 둘러다보고, 친구 하루코와 코타를 부릅니다. 하루코네 집은 없는 것이 없는 마을의 유일한 가게를 운영하고, 코타는 부모를 도와 목수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힘을 모아 숲 속 초등학교를 호텔로 바꿔 엽니다. 그리고 손님도 들이나 찾아옵니다. 머릿속에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인 음악가인 '샵'씨와 새로운 별을 찾아내는 일에만 골몰해 있는 우주관측가인 '코스모스'씨입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파묻혀 있어 어느새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해 보이던 두 손님은 호텔 숲 속 초등학교에서 머무는 동안 조금씩 변해갑니다. 자기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아름다운 하늘 그 자체로, 음악을 승부의 수단이 아닌 그저 아름다운 음악 그 자체로 즐기는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힘을 합쳐 호텔을 열고 운영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인간처럼 그

려지고 있지만 사실 동물들입니다. 샵 씨, 코스모스 씨와 함께 호텔 숲 속 초등학교의 손님이 되어봅시다.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을 소설입니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세 명의 졸업식

제 1장: 숲 속 초등학교

제 2장: 호텔 오픈!

제 3장: 두 손님

제 4장: 몸이, 마음으로?

제 5장: 만월의 약속

제 6장: 샵 씨의 숙제

제 7장: 밤의 음악회

제 8장: 숲 속 마을의 겨울

에필로그

<저자소개>

고마츠바라 히로코(글)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문학부 영미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창작 작품으로는 《좋은 꿈 하나를 맡아두겠습니다》《좋은 꿈 하나를 발견했다》, 번역 작품으로는 《스누피와 언제나 함께》등이 있다. 도쿄에 살면서 가정문고를 운영 중이다.

가메오카 아키코(그림)

야마가타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호쿠생활문화대학에서 생활미술을 전공하였다. <일 년에 한 번 찾아오는 손님>으로 등단한 후 동화책 삽화, 만화 연재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